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는 이유

결론

빅 콜먼

소개

최근 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지만, 인생의 여러 시기에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했지만 "실제적" 또는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그분께 그다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에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분이 내 삶에서 하신 일에 대한 초점을 잃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기도할 때, 나는 믿음과 신뢰 대신 두려움과 절망으로 구걸하거나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 과는 의심의 "유사"와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어려워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심은 주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과에 사용된 성구

잠언 3 : 5

히브리서 11:1

출애굽기 14 : 31, 15 : 22 – 25

출애굽기 3: 7 – 10

출애굽기 17: 1 – 7

민수기 13장

민수기 14

배경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기적과 "큰 구원"(홍해를 건너심)을 겪으신 후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사막에서 "최소한" 시간을 보낸

다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려고 시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백성은 시험에 "실패"했는데, 즉, 백성은 특정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모세(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일상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반복되는 불평과 불신의 패턴은 국가가 가장 원했던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출발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 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격려의 말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친숙한 구절을 읽어보세요.

5절에서 "신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탁"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뢰하고,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대담해지고,
안전해지고, 신뢰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등에 자신의 무언가를 던진다는 생각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염려를 그분의 등에 "던져"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관한 기초 성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의 "믿음"은 그리스어 "pistis"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다음을 의미하는 어근 "peitho"에서 유래했습니다.

- 일. 설득하다, 설득하다, 즉 말로 믿도록 유도하는 것
- 이. 진정시키다(정신적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 삼. 설득하는 것, 즉 무언가를 하도록 설득하도록 움직이거나 유도하는 것
- 사. 설득을 받고, 설득을 받도록 자신을 용납하는 것; 믿도록 유도되다: 믿음을 갖다: 어떤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다
- 오. 믿다
- 육. 사람에 관한 것을 설득하는 것
- 칠. 듣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순응하기
- 팔.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우리의 능력이 아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평온함을 느낍니다(정신적 긴장과 불안이 해소됨).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순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걷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특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태도, 즉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뢰와 믿음에 대해 더 잘 이해했으므로 우리가 "의심의 유사"에 여러 번 발을 들여놓는 일반적인 이유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책이나 나무를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는 때때로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릅니다 –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 부모를 생각하면 그들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전화를 걸 때 자신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즉시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감기나 인후통으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가 "변경"되는 시기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역사를 쌓았습니다. 신뢰는 또한 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옵니다. 대조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현재 상황만큼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 미납 청구서 더미, 직장에서 나오는 분홍색 슬립은 모두 실질적이며 우리의 창조주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력자를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 – 두려움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행동, 태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 괴로움 및 기타 강한 감정 – 우리는 감정을 가진 육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경건한 조언을 듣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말과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때로는 듣고 싶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 위기나 장기간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현재 사건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것은 격려와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신을 가라앉히고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죄 – 죄는 정의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생각, 태도, 행동 및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의 유사"에 대해 더 잘 느끼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직후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몇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바로가 이집트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연안으로 쫓아갔던 방법을 묘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의 기둥 속에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알려줍니다. 이집트인들이 건너려고 했을 때 양쪽의 물벽이 그들에게 떨어져 익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에 흡싸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의 원수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 후, 이들의 기쁨은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4:31, 15:22-25 낭독.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경험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그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 모세(그리고 주님)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6:1-16을 읽으십시오. 3절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불평했고 이집트에서 죽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묘사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으며 납치자들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구원을 구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분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10을 읽으십시오. 분명히 이제 그들은 상황이 "좋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왜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다"고 느꼈을까요?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했거나, 나쁜 상황을 떠났다가 나중에 되돌아보고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특히 나쁜 상황이 여전히 나쁜 상황인 경우 당신/그들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가?

한 가지 테스트에 대해 더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1-7 낭독.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그 구원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백성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삶에 "도망칠 수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가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까(비록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목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유사" 유형 중 어떤 유형이 당신을 가장 가두게 합니까?

의심의 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관한 성구를 연구하다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거의 눈물이 났습니다. 의심의 대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민수기 13과 14절을 읽어 보십시오.

의심의 대가는 본질적으로 "죽음", 즉 광야에서의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가장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의심이 그것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유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 안에 발을 들여놓았습니까?

요약

이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심, 특히 큰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것입니다. "유사"에 대한 치료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면서 "모래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감정에 사로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짐에 따라 "불확실성"은 덜 빈번해지고 지속 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장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수업을 위해 몇 가지 조사를 하면서 유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만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유사 구덩이가 매우 깊은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몸 전체를 덮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우리 몸은 유사보다 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유사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덜 고군분투할수록 자연(부력)이 영향을 미치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부력)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이 고군분투할수록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다리와 팔이 물에 잠기면 자신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위험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력"이 우리를 상황 위로 끌어올리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